

弘濟洞五層石塔은 附近의 地帶가 높아지고 民家の 侵透가甚하여 現場에서 保管되도록 多年間 努力하여 왔으나 이 以上 現場保存이 어렵게되어 景福宮으로 移建하기로 決定하고 解體 復原은 秦弘燮、鄭永鎬 兩委員이 立會指導하기로 하였다.

◎檀國大學校 博物館 特別展示會 開催

지난 十一月四日—六일까지 開校二十一年紀念特別展示會를 博物館에서 開催하였다. 第二陳列室開設記念도 겸한 이 展示會에서는 泗川松旨里 石箱式古墳出土遺物과 新收品 百餘點、拓本과 石箱古墳發掘과 善山地區地表面調査狀況을 撮影한 大型寫眞이 같이 展示되었다. 특히 石箱古墳一基의 移安復原한 것과 假面度量衡器는 參觀者의 視線을 모았다.

◎梨花大博物館 新收土器展

最近 新收된 土器中 三百餘點을 찾이고 同大學校 博物館에서 十一月 五日부터 末日까지 展示한다. 그 中에는 車形、家形、鴨形 등 異形土器와 埴台、高杯、骨壺、埴 등이 包含되었다.

◎崇實大學校 博物館 展示會 開催

지난 十一月六日—八일까지 崇實大學校基督敎博物館에서 金良善敎授原所藏의 新石器時代부터 高麗代까지의 土器와 土偶、瓦當 등 三十一點을 展示하였다. 平壤·慶州·玄風·昌寧 등지에서出土한 土器와 最近發掘된 岩寺洞遺蹟地의 遺物과 五錢鎔范(鐵製) 등이 陳列되었다.

◎東國大博物館 佛敎金石文 特別展示會

十一月十二日—十六일까지 東國大學 博物館에서는 佛敎金石文 特別展示會를 개최하였다.

百濟·新羅·高麗時代의 重要佛敎金石文拓本 二二點과 新羅·高麗代의 佛敎金石文資料(貨物) 一五點이 展示되었다.

報告

大邱 達城 城壁調査

尹 容 鎭

大邱市 達城洞에 現存하는 達城은 現在 達城公園으로 利用되고 있다. 十月十四일부터 同月二十七日까지 文公部의 指示에 따라 金英夏敎授 尹容鎭助敎授가 이 곳 城壁의 斷面을 整理 調査하였다. 調査結果 發見된 몇 가지 事實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一、城은 土城으로서 內部는 割石으로된 積心石을 넣고 外部에 粘土로 다져된 是 構造이다. 現狀態에서 土城의 斷面規模를 보면 幅은 約二〇m、높이는 約六m가 되며 그 아래는 堆積層을 이루고 있다.

二、城 築成下部는 三個로 區分되는 큰 層을 이루고 그 아래에 岩盤이 形成되어 있다. 큰 層 사이에는 작은 層이 여러개 있다. 層의 全高는 約五m이며 各層에서 木炭、木片 獸骨 土器片이 採取되었다.

三、三個로 大別되는 層에서의 採取物 가운데 重要な 變化를 보면 第一 上層은 土城基礎面으로서 燒土質의 얇은 層을 이루며 高杯片 埴臺 등 三國古墳에서 보는 土器類가 採取되며 瓦質의 所謂 金海式 印文土器도 少量採取되었다. 第二層은 第一層에서 一·五m 乃至 二m 下에 形成된 文化層으로서 燒土와 腐蝕된 土層이다. 여기에서는 第一層에서 發見되는 三國時代 高杯類와 같은 堅質土器가 發見되지 않고 瓦質의 金海式土器가 主로 發見된다. 그리고 한곳에서는 타다 남은 木片、アソ 등 이 密集되어 얇은 層을 이루고 있었고 이 層 바로 아래에 木柱址 二個가 發見되었다. 아직 判斷을 할 수는 없으나 住居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住居址? 邊에 淡水産 貝殼이 흩어져 있다. 第三層은 城外로 傾斜를 이룬 岩盤 바로 윗 部面으로서 岩盤에서 約二〇乃至 五〇cm의 自然土層을 두고 그 위로 形成된 文化層이다. 여기에서는 淡水産의 貝殼類가 大量으로 나오며 土器는 金海式 印文土器壺類가 大部分이다.

이 층에서는 以外에도 金銀기로 彫刻한 骨製鐵이 完全한 모양으로 採取되었으
며 特異한 것은 아주 堅質의 表面黑色으로 된 潤氣 나는 甕器片이 出土되었다.
그리고 이 층에서는 木柱類의 木質이 垂直으로 박은 痕跡이 十餘個 있었다. 存
在狀態로 지금 住居用 木質인지 木柵인지 알 수 없으나 人爲的인 것임에는 틀림
없다.

以外에 第二層 第三層에서 桃實이 發見되었다.

四、이곳 達城丘陵에서의 定着始發은 最下層에서 發見된 骨角器로 보아 金屬
器時代에 들어와서 이미 古墳形成以前 社會의 時期로 볼 수 있고 土城은 古墳築
造時期에 들어와서 築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以上 몇가지 重要視되는 事實을 發見하였으나 平面的 區域의 擴大發掘調査에
적지않은 制約이 있었기에 下層 그리고 中間層인 第二層에서 發見된 住居址?
의 樣相을 規明 못하였다.

그러나 三國古墳形成期 以前の 土器編年에 큰 도움을 준 調査가 되었음은 事
實이다.

法住寺 通信 (三)

金 東 賢

基壇 實測은 十月二十日 完了되고 二十一日부터 基壇部 解體가 着手되어 地臺
받침石만을 除外한 基壇石全體가 二十四日 解體完了되었다.

基壇石 內部の 積心은 調査後 八日間에 걸쳐 解體되었다. 基壇石 解體와 併行
하여 治木과 治石工事도 進行되었다.

治木은 心柱받침 十字木을 비롯하여 一層包材의 部材復原이 大部分이었고 一
二層의 扇子椽 마름질이 그 다음의 일이었다.

石工事는 既完成된 新造의 基壇石材 중 上·下面 및 兩側面의 다음질이 재손
질되어 治石場으로부터 建物周圍로 移動되었다.

基壇 積心 解體중 崔淳雨 指導委員과 黃壽永 教授의 來訪이 있었다. 이때에

論議된 事項은 첫째 舍利壯嚴具의 奉安問題, 둘째 塚갈기 問題, 셋째 基壇 復原
에 關한 問題였다.

舍利裝具의 再奉安問題는 寺刹側의 意見을 받아 들여 反映시키는 것을 原則으
로 하되 一旦 文財委에 附議시켜 檢討키로 하였다.

寺刹側에서는 이 問題에 對하여 石製 舍利盒과 그안의 壯嚴具를 再奉安할 것
을 主張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石製 舍利盒內의 銀製 舍利壺는 金製로 交替시킬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시사하였다. 交替되는 一切의 遺物은 寺刹側에서 그 經費
를 負擔키로 協議되었다.

塚갈기 問題는 一層 平面內의 邊柱와 高柱間의 바닥面에 限하기로 하고 그 施
工 內容은 再考토록 하였다. 解體時에 出土된 塚의 種類는 四、五種에 이르는
各種이므로 그 規格은 再考後 決定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基壇 築石에 關한 原來的 示方書內容에는 基壇 全體를 新材로 交替하
고 舊材는 積心으로 利用토록 되었으나 再用할 수 있는 舊材는 되도록 救濟하여
使用하도록 하였다.

基壇 築積에 關한 細部內容이 確實하게 決定되자 工事는 急進展되어 十一月
六日現在 基壇 基礎工事が 完了 段階에 있다.

(監督陣 人事, 金周泰 專門委員과 孟仁在 專門委員이 交替됨 十一月二日宇)
(二九六八, 十一, 六)